



悲心을 갖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. 우리佛教는 全體가 大悲大悲로써 體를 삼았으니 一切大悲心이 업시佛 教을 傳布할 수 있으리라 佛大智心이라 함은 大智慧 로써 一切佛法을 求하야 一切衆生으로 하여야 공 다 法喜의 樂을 得케 하야 十方虛空의 無量한 佛世 界를 周觀하고 三世衆生의 無量한 因緣을 明察하 야 智眼이 虛空과 같고 辯才가 바다와 같고 智增菩 薩文殊大士와 같은 智力을 가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.

順衆生願 普皆回向願 이러한 열 가지 願이다. 우리 는 이런 것을 空文으로 보지 말고 다 못한 가지라도 實 行하기를 바란다.

### 三、回向心을 가지라

以上에 論述한 三心과 四弘誓願과 普賢의 十重大 願은 보다 大信心大信仰으로 보려 流出하는 것이라 第一은 저 信仰만 근체가 될 것 가 보면 三心도 그 가운데 있고 四弘誓願과 十重大願도 그 가운데 있다. 그러나 四弘誓願과 回向心을 갖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. 그러면 回向心이란 무엇인가 回向이라 함은 初發信心으로 보려 三心을 행한功德과 四弘誓願을 행한功德과 十重大願을 행한功德을 나의 게 짜야 두지 말고 盡法界虛空界一切衆生의게 도리켜 하야 一切衆生으로 하야 恒常安樂을 얻어 버서 모든 痛苦가 업스 며 모든 衆生이 惡法을 행코저거든 다 이루어지 못하게 하고 다 근바 善行은 다 速히 成就케 하야 一切의 모든 惡趣門을 關閉하고 人天涅槃의 正路를 開示하며 만일 모든 衆生이 그 積集한 惡業을 因하 는 故로 一切의 極重苦를 免게 되거든 내가 다 代受 하겠다는 菩薩의 究竟心이다. 靡不有初나 鮮克有終 功德願 請轉法輪願 請佛住世願 常隨佛學願 恒

以上에 論述한 三心과 四弘誓願과 普賢의 十重大 願은 보다 大信心大信仰으로 보려 流出하는 것이라 第一은 저 信仰만 근체가 될 것 가 보면 三心도 그 가운데 있고 四弘誓願과 十重大願도 그 가운데 있다. 그러나 四弘誓願과 回向心을 갖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. 그러면 回向心이란 무엇인가 回向이라 함은 初發信心으로 보려 三心을 행한功德과 四弘誓願을 행한功德과 十重大願을 행한功德을 나의 게 짜야 두지 말고 盡法界虛空界一切衆生의게 도리켜 하야 一切衆生으로 하야 恒常安樂을 얻어 버서 모든 痛苦가 업스 며 모든 衆生이 惡法을 행코저거든 다 이루어지 못하게 하고 다 근바 善行은 다 速히 成就케 하야 一切의 모든 惡趣門을 關閉하고 人天涅槃의 正路를 開示하며 만일 모든 衆生이 그 積集한 惡業을 因하 는 故로 一切의 極重苦를 免게 되거든 내가 다 代受 하겠다는 菩薩의 究竟心이다. 靡不有初나 鮮克有終

이라는 말과 가치 一切의 感激을 얻어 서 모처럼 信仰을 發하고도 結果가 업는 것은 이러한 回向心이 업 는 까닭이다. 佛家에서 흔히 回向을 잘 하여야 한다는 말이 여러 한 뜻을 가르친 것이다. 回向에 무슨 세 가지 藏回向이 있으니 卽實際回向과 菩提回向과 衆生回向이다. 實際回向이라 함은 實際에 있서 法을 이 룬다는 말이요 菩提回向이라 함은 菩提에 있서 佛을 이 룬다는 말이요 衆生回向이라 함은 衆生에 있서

僧들이 룬다는 말이니 實際、菩提、衆生三藏에 있서 各其回向을 하잔 말이다. 우리는 아무 조목 불 뜻 가론 信火를 이르게 서 모든 煩惱障을 燒除하야 버 리고 悲智願三心의 大海로써 모든 衆生을 含潤 拯濟하야 三處에 圓滿하게 回向하기를 바란다. 이 지이 覺醒의 宗教를 信奉하는 者의 使命이요 能仁大 覺世尊께서 苦口叮嚀하신 教訓이다.

## 洋樂과 朝鮮樂에 對한 所感

白 禹 鏞

大抵音樂은 本質의 三方面으로 樂曲 演奏 欣賞

等이 있고 形式의 三方面으로 表情 技巧 形式的 等이 있는 것이다. 이런 原則으로써 洋樂을 룬다가 朝鮮樂을 考察하면 말할 것이 一 二가 안 될지라 수에 이 것 을 다 談論할 수도 업고 또 不佞은 朝鮮樂譜를 洋樂譜 로 譯作하는 事業이 日淺하야 確實한 所感을 아직 完得지

西洋樂은 現今 純音樂 또는 絕對音樂으로서 吾人 의 進步한 心의 動作에 依하야 複雜한 想像力에 訴하야 有 形無形의 事機를 音響의 組合으로 描出할새 於是乎 標 題樂 Programmatic Music 이란 것이 發達되여 나가는 터 이다.

못한지라 盡善盡美로 徹底하는 말하기 不能하나 其 間短時期에 이서 小小한 觀察로만 暫言코저 하는 바이

觀컨대 朝鮮樂은 發達이 未及한 古藝術을 習을 不免하야 主觀 客觀을 分別하기 難한 感情의 發作으로 出한 藝術